

## 무등산 '원효사지구 상가' 갈 곳 잃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추진하는 무등산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이 지난 1년간 진척도 없이 제자리로 맴돌고 있다.

공원 심층부 원효계곡 주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음식점 등 40여곳의 상가를 공원 밖으로 옮기는 게 사업의 핵심이지만, 이주 대상지 선정·발표와 재선정을 거듭하면서 무등산 경관 및 환경 복원도 늦춰지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원효사 계곡을 중심으로 영업 중인 노후 상가 39곳의 이주 대상지로 광주 북구 충효동의 충장사와 충효분교, 평모들 등 3곳으로 압축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정비 사업을 위한 최종(유역)보고서를 통해 상가 39곳의 이주 대상지를 북구 충효동 562-2번지 취가정 일원으로 선정·발표 이후 꼬박 1년간 허송세월한 뒤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최근 또다시 이주 대상지 선정 절차에 들어간 이유는 애초 상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취가정 일원 부지가 문화재보호 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취가정 일대 '문화재보호구역' 모르고 이전 추진... 1년간 허송  
 충효분교·충장사·평모들 3곳 모색... 환경복원 위해 서둘러야



무등산 원효사 계곡을 중심으로 영업 중인 음식점 등 39개 상가시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상가들이 옮겨갈 장소로 선정된 곳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행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지난 4월 광주시로부터 전해 듣고서야 뒤늦게 상가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 중이라는 것이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측은 원효사 상가 이주 대상지 선정에만 1년 이상 허비하

면서 원효사 계곡을 중심으로 늘어난 노후 상가 정비를 통해 무등산 환경을 복원하려던 사업도 상당기간 늦춰지게 됐다. 실제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014년 원효사 상가 철거 및 환경복원 사업을 위한 용역 예산으로 4억원을 확보했지만, 이주 대상지 선정과 재선정을 거듭하면서 환경

복원을 위한 용역 착수에는 나설지도 못하고 예산만 늘리는 형편이다.

상가 시설 이주에 동의한 원효사 상가 주민들도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측의 여설픈 행적으로 이주 시기가 늦춰지다 보니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원효사 상가 번영회 회장 신용호(69)씨는 "노후 상가가 밀집해 보기 안 좋으며 공원 밖으로 상가를 옮기자고 해서 동의했다. 2년 내내 의견 수렴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이주 대상지 선정을 둘러싸고 1년간 진척이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애초 밝힌 대로 광주시 도움 아래 2020년대 초반까지 상가 이주는 물론 환경복원 사업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원효사 계곡 주변에는 2만100㎡ 부지에 산장, 음식점 등 노후 상가 39곳이 밀집, 무등산 경관과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20년대 초반까지 국비 등 230억원을 투입해 상가를 모두 이주시키고 빈 자리를 자연상태로 복원하려는 사업을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단감 '로망' 수확 19일 오후 나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원구소 내에서 직원들이 국산 단감 '로망' 품종의 수확에 한창이다. 당도가 높고 육질이 연해 식감이 우수한 로망은 2016년에 일반 농가에 보급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공항·무안공항 상생 해법 찾나

23일 시도지사 상생발전회의 전남도 "민간공항 우선 이전" 광주시 "민간·군공항 묶어서"

광주공항(이하 민간공항)과 군(軍) 공항 이전, 그리고 이를 통한 무안공항 활성화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하지만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연계"를 주장하는 광주시와 "민간공항 우선 이전"을 주장하는 전남도 간 입장차를 좁일만한 특별한 계기가 없어 성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양시·도는 오는 23일 오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유관청장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등이 참석,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연다. 지난해 양 시도의 상생발전을 위해 출범한 위원회는 이날 무안공항 활성화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광주(민간)공항 문제 논의를 더는 미룰 때가 아니며 이제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

로 이전하는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전남도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이 전제된 상황에서 무안공항이 건설됐다"며 "민간공항 이전을 더는 늦추서는 안 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서로 논의를 통해 시점을 조정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연계할 경우 무안공항 활성화가 크게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광주시는 민간공항 이전을 군 공항과 별도로 다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군 공항 이전은 합의하지 않은 채 민간공항 이전을 별도로 추진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의 반복이다.

한편, 광주시는 19일 서구 5·18 교육관과 광산구 우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시민설명회를 가졌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군 공항은 오는 2022년까지 옮기고, 그 자리에는 2025년까지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朴, '방미 결과 설명' 청와대 회동 제안

### 文, '교과서 문제 논의' 3자 회동 역제안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에게 한미정상회담 등 방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청와대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 회동'을 역제안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기환 청와대 정부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각각 찾아 "박 대통령이 방미 결과 설명과 함께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방안 등의 처리를 당부하려고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무안공항 '안개의 습격' ▶ 6면

박중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 8면

광주FC 남기일 감독 인터뷰 ▶ 12면

## 국토장관 강호인·해수장관 김영석 내정

외교안보수석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임명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강호인 전 조달청장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김영석 현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는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임명했다.

<관련기사 3면>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송언석 현 기재부 예산실장을, 교육부 차관에는 이영 한양대 교수를, 외교부 1차관에는 임성남 주영국 대사를, 국방부 차관에는 황인우 전 육군 참모차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에는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을, 해수부 2차관에는 윤학배 현 해양수산 비서관을 각각 발탁했다.



강호인 내정자 김영석 내정자



김규현 수석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오늘 국정과제와 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부처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

러한 내용의 부분 개각 및 청와대 개편 인사를 발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미래  
The E-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 신성자동차(주) 광주 경서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신성자동차(주) | E 200 1,991cc, 1435kg, 7G-TRONIC PLUS, 400km/ℓ(도심)~11.0km/ℓ, 33.65km/ℓ(외도)~14.2km/ℓ, 38.92, 4400cc 배출량 145kg/km • E 220 2143cc, 1788kg, 7G-TRONIC PLUS, 400km/ℓ(도심)~11.2km/ℓ, 33.65km/ℓ(외도)~14.2km/ℓ, 38.92, 4400cc 배출량 127kg/km • E 250 BlueTEC 4MATIC 2143cc, 1935kg, 7G-TRONIC PLUS, 400km/ℓ(도심)~11.1km/ℓ(도심)~12.4km/ℓ, 33.65km/ℓ(외도)~17.0km/ℓ, 29.99, 4400cc 배출량 140kg/km • E 300 3498cc, 1798kg, 7G-TRONIC PLUS, 400km/ℓ(도심)~9.7km/ℓ(도심)~11.0km/ℓ, 48.93, 4400cc 배출량 183kg/km • E 300 4MATIC 3498cc, 1808kg, 7G-TRONIC PLUS, 400km/ℓ(도심)~9.5km/ℓ(도심)~11.0km/ℓ, 48.93, 4400cc 배출량 183kg/km • E 350 BlueTEC 4MATIC 2497cc, 2045kg, 7G-TRONIC PLUS, 400km/ℓ(도심)~12.6km/ℓ(도심)~11.2km/ℓ, 33.65km/ℓ(외도)~14.7km/ℓ, 38.92, 4400cc 배출량 135kg/km • E 400 4MATIC 2996cc, 1935kg, 7G-TRONIC PLUS, 400km/ℓ(도심)~9.3km/ℓ(도심)~11.0km/ℓ, 58.91, 4400cc 배출량 190kg/km • E 63 AMG 4MATIC 5461cc, 2300kg, AMG SPEEDSHIFT MCT 7 speed, 400km/ℓ(도심)~7.6km/ℓ(도심)~6.5km/ℓ, 33.65km/ℓ(외도)~9.3km/ℓ, 58.91, 4400cc 배출량 230kg/km ※ 본 연비는 2015년도의 시험 연비로 도로나, 운전양상, 차량무게 및 관성량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